

이재상

변호사시험대비
강의계획서

박사 형법

최신 3개년 판례 특강

- 형법과목의 선택형 문제는 물론 주관식 사례문제에서 고득점을 하는데 최적화 되도록 구성
- 「핵심 요약」으로 내용을 정리함으로써 판결문의 전체 법리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강의
- 교재에 있는 최신 판례에 중 중요한 것 위주로 3회 분량으로 적절하게 나누어서 강의를 진행

일 정

[형법] 7. 22(월) ~ 7. 23(화), 오전, 오후 강의, 총3회

7.22(월) 오후 2 : 00 ~ 오후 5 : 30

7.23(화) 오전 10 : 00 ~ 오후 1 : 30, 오후 2 : 30 ~ 6 : 00

교 재

- 새로 쓴 로스쿨 형법 최근 3개년 판례(2024판, 월비스 판)

형법 최신 3개년 판례특강**강 의 특 징**● **교재소개**

1. 본 교재는 2021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딱 3년 치 분량의 형법과 관련된 판례만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2. 수험생들이 최신 판례의 내용을 더욱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주요 판례에는 빠짐없이 「핵심 요약」을 추가하였습니다.

① 하나의 판결문 안에서도 여러 개의 다른 내용의 법리가 실시되어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판결문의 핵심적인 법리를 사안에 따라 2~5개 정도의 짧은 문장의 지문형식으로 요약하여 정리 하였습니다.

② 최근의 판례의 경향은 1개의 쟁점만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복합적인 법리적 쟁점들을 판결문에 실시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③ 핵심 법리는 그 자체로 ㉠ 곧바로 선택형 문제의 지문이 될 수 있으며 ㉡ 사례형 문제에서는 답안 지에 반드시 현출해야 하는 판례의 핵심내용이 됩니다.

④ 장문의 판결문을 그 실시 내용에 따라서 2~5개 정도의 짧은 요약문, 즉 「핵심 요약」으로 그 내용을 정리함으로써 판결문의 전체 법리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3. 본 교재는 최근 3년 간 판례만 수록하여 그 전체 양이 140P 정도일 뿐입니다.

불과 몇 시간만 보더라도 최신 3개년 판례를 1회독할 수 있을 정도의 분량으로 수험생활에 아주 효율적인 교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최신 판례는 「대판 2024.6.27. 2021도2340」 대법원 판례까지 수록하였습니다.

● **강의진도**

교재에 있는 최신 판례에 중 중요한 것 위주로 3회 분량으로 적절하게 나누어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변호사시험 대비

이재상 박사 강의계획서**형법 최신 3개년 판례특강****「핵심 요약」 예시**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소정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배포’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교부하는 것을 의미하고, ‘공연히 전시’하는 행위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실제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의 웹사이트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저장된 다른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해 놓는 행위자의 의사, 그 행위자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의 성격 및 사용된 링크기술의 구체적인 방식,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담겨져 있는 다른 웹사이트의 성격 및 다른 웹사이트 등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실제로 전시한 방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링크의 게시를 포함한 일련의 행위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다른 웹사이트 등을 단순히 소개·연결하는 정도를 넘어 링크를 이용하여 별다른 제한 없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를 실제로 조성한다면, 이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직접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것과 실질적으로 다를 바 없으므로 위와 같은 행위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소지’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파일을 구입하여 시청할 수 있는 상태 또는 접근할 수 있는 상태만으로 곧바로 이를 소지로 보는 것은 소지에 대한 문언 해석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자신이 지배하지 않는 서버 등에 저장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접근하였지만 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하는 등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지는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대판 2023.10.12. 2023도5757). 판례연구 2024

**핵심
요약**


- ① 자신의 웹사이트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저장된 다른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게시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링크를 이용하여 별다른 제한 없이 성착취물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를 실제로 조성한 경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하는 구성요건을 충족함.
- ②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 ③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파일을 구입하여 시청할 수 있는 상태 또는 접근할 수 있는 상태만으로 곧바로 이를 소지로 볼 수 없음.
- ④ 피고인이 자신이 지배하지 않는 서버에 저장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접근했으나 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하는 등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지는 않은 경우, 성착취물을 ‘소지’한 것 아님.
- ⑤ 다만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을 구입한 다음 이를 전송받아 시청한 경우 성착취물 시청죄 성립.

선택형 OX 甲이 A가 운영하는 메신저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가상화폐로 사용료를 지불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21개가 저장되어 있는 고액방 접속 링크를 제공받아 甲 소유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F채널을 통해 시청한 행위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시청죄는 물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소지죄를 구성한다. (×)

변호사시험 대비

이재상 박사 강의계획서**형법 최신 3개년 판례특강****「핵심 요약」 예시**

[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의 문언, 입법 목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실제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는지와 상관없이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에서 정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를 걸어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여 말을 도달하게 한 행위는, 전화통화 내용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었음이 밝혀지지 않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지위, 성향,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전화통화 행위가 피해자의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평가되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게 된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전화통화 당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 ‘말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수신 전 전화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발신자 전화번호가 표시되도록 한 것까지 포함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킨 것으로 평가된다면 ‘음향, 글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마찬가지로 위 조항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대판 2023.5.18. 2022도12037). 

**핵심
요약**

- ① 전화를 걸어 상대방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실제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는지와 상관없이 스토킹처벌법 소정의 스토킹행위에 해당함.
- ②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를 걸어 상대방과 전화통화를 하여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 전화통화 내용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었음이 밝혀지지 않더라도 전화통화 행위가 피해자의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평가되면 스토킹행위에 해당함.
- ③ 상대방과 전화통화 당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 ‘말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평가되면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선택형 OX 甲이 A(女)에게 총 20회에 걸쳐 휴대전화로 반복하여 전화를 걸었고, 그 중 A가 甲의 전화를 수신하여 甲과 약 7초간 전화통화를 하였으며, A가 甲의 전화를 수신하지 않음에 따라 A의 휴대전화에 발신자 정보 없음 표시나 부재중 전화 표시가 남겨지도록 한 행위가 A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킨 것으로 평가된다면 甲의 행위는 스토킹처벌법 소정의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 (○)